



## 긴급재난지원금 97% 수령...13.2조원 받아갔다



중로구민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102만 가구 13조2486억원 신청·지급  
신용·체크카드 66.5%, 선불카드 10.4%  
8월 31일까지 다 써야...미소진 잔액 환수

전체 가구의 약 97%인 2102만여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3조 2000억원여 원을 받아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01만9624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3조2485억5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6.8%,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0만 가구, 1205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44만744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 5063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6.5%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26만6336가구(10.4%)가 1조48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44만5268가구(6.7%)가 9538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579가구에는 1조 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7%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PM업체선정 목전에



용인시청

제안서 제출한 6개 참여 업체 모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기다리겠다.”

20여년째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 조합 측은 오는 6월 3일 최종적인 PM 업체 선정 발표를 목전에 두고 “용인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서로의 이해다툼과 계파갈등, 각종 소송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서로가 불필요한 소송 등을 자제하고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PM업체가 선정된다면 용인시 또한 조합원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도 “용인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서로의 이해다툼과 계파갈등, 각종 소송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서로가 불필요한 소송 등을 자제하고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PM업체가 선정된다면 용인시 또한 조합원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발표에 앞서 그동안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6개사는 모두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였으니 “진

정우성 기자 herwoos@naver.com

## 박원순 “일반인 공개 모집해 선제검사”...조용한 전파 차단

서울시가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는 코

서울 72개 학교 기숙사 입소자 5846명  
서초구 영어유치원 24개소 직원 595명

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72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자 5846명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하고 있다. 시는 또 서초구 소재 영어유치원 24개소 직원 595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인 대상 공개모집 검사도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산발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환 기자 sunmoon500@naver.com

소백산 맑은 기운을 담은

## 양질의 토양을 먹고 자란 풍기인삼

세계 제일로 알려진 우리나라 고려인삼,  
그 중에서도 제일로 평가 받는 풍기인삼입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영주 소수서원·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합니다.

홈페이지 [www.kpgshop.co.kr](http://www.kpgshop.co.kr)  
문의전화 054-638-3434

풍기인삼농협

#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경제 살리기 광폭행보!

### 도지사, 청와대, 중기부, 식약처 전방위규제완화간곡히 부탁 다가오는 예산철, 위기극복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철강예타, 구미 5산단 임대전용 산단지정 등 지역현안 및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우선 청도 대남병원 중증환자 상급병원 이송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락에 대해 보통의 성의가 넘는 지원이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현안들을 들고 왔으니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며 “일반적인 대마합법화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면서 안동지역의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관계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는 이미 HEMP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안전하게 산업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특구까지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CBD\*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BD(카나비디올, Cannabidiol) :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진정 등의 효과가 있어 우울증치료제, 피부보습 등 바이오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 해외시장규모 약 24조원 예측

더불어 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사업’과 ‘구미 국가5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2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건의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박연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규제자유특구 1년을 맞아 경북 지역이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중기부에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평가를 잘해줘서 기업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게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6월말 3차 지정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연말이 되면 유엔마약통제협약에서 CBD가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식약처와 함께 신산업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에 박연선 장관도 “경북의 우수 평가를 축하드린다”면서, “아직 식약처가 대마의 성분이 마약인지 의료치료와 같은 바이오소재인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무증상 전파자가 많다면서 관련자 철저히 전수조사해 조용한 전파자를 막는게 우선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안동시장님, 식약처 답변 기다려보면서 규제이슈들을 공론화하여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군수님들 중앙부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내년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대중교통 못탄다

### 대중교통운행차승차기회도그대로 면제 운전자도마스크착용, 지자체도사행할예정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과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상 버스, 택시,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린다.

철도와 도시철도는 승차 거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되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한다.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겠다”며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 철도, 지하철, 택시 등은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1일 1회 이상 실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투 기자

## 경주시, 2021년도 국비확보 방안 박차를 가한다

### 당정협의회 개최 및 국비확보방안 논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서

경기 경주시는 최근 미래통합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도비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배진석 도의원, 윤병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시의원, 읍면동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 건의사업 보고 및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관광수요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인 경기 하향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 당정이 견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앙부처 방문 및 핵심사업 건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주요 지역현안사업으로 SOC분야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농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등 지원을 건의했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육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에너지분야에서는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사업,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 조성사업,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등 4차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국도31호선 확장과 국도 14호선 신설 및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건의하는 한편, 침체된 동심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갈포항 연안항 승격,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신규예산 코드 부여를 강력 요청하는 등 앞으로 경주시의 향후 청사진을 마련코자 활용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발휘하도록

했다.

정부예산안은 6월부터 기획재정부의 각 사업별로 사회, 경제, 행정국방, 복지안전 심의를 통해 8월말 국무회의에 보고·의결되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 제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국·도비사업 예산이 경주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시를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의 동반자, 지지자로서 당의 역할을 다해 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주/한반 기자

## 부산시, '재생사업' 공모 3곳 선정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국비 3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부산진구 범천동 △해운대구 반여동 △금정구 장전동으로 총사업비 7억8천만 원(국비 3.9억·지방비 3.9억)이 투입되어 쇠퇴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편의공간 개선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범천동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 사업'은 마을길 정비,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해운대구 반여동은 '속닥속닥 삼여발전소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의 주민편의공간 개선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예정이다. △금정구 장전동은 '부산대학교 생활력 UP!'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극복과 지역상권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주민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유리시아플랫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3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부산/김영찬 기자

## 광명시, 민·관 협치 도시재생 추진 박차

광명시는 2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시민, 민간전문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발대식 및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광명시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민·관 협치 조직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을 총괄기획단장으로 황희연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이 도시재생조정관을 맡고 있으며 도시재생위원, 행정협의회, 시민참여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토론회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배웅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안정희 (사)도시재생활동가 네트워크 이사장, 권순형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발제는 재난시대에 도시재생의 방향이라는 테마로 전대욱 지방

행정연구원 박사, 이주원 (전)세종특별자치시 정책보좌관,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을 맞아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주민조직(거버넌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거버넌스, 소규모 거버넌스, 온라인을 통한 역량강화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인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이 발족함으로써 광명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너부대공원 일원, 새터마을(광명7동 일원), 광명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정재투 기자

## 아동친화 예산 전년 대비 2.36% 증가 3731억

용인시는 24일 올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61개 사업에 전년보다 2.36% 증가한 3731억74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5.23%에 해당하며 지난해 아동친화 정책 예산보다는 86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이번 예산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을 비롯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 4대 권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아동 수당과 가정 양육 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가정(생활)환경 분야다. 올해 2286억원이 들어가지만 89.63%는 국비로 충당한다.

시비로는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을 비롯해 방과후교실 지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등 교육

환경 조성 분야와 출산지원금 지급,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아동 친화 사업별 예산 분석 현황을 정리한 '2020년 아동친화 예산서'를 제작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예산서를 발간했다”라며 말했다.

유니세프는 10가지 원칙 중 6번째로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유기성 기자

## 거제시, 엘로업 스쿨존사업 민·관 업무협약 체결

거제시는 민관 협력으로 엘로업 스쿨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일 거제시청 시청실에서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경남서부 아동권리센터, 거제시녹색어머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안전한 거제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지난 1월 학부모들과 시행한 소통간담회 이후 굿네이버스 경남서부아동권리센터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엘로업 스쿨존 사업은 거제시의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맞추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범구간을 선정할 후 안전신호등 설치, 지역사회 공동 캠페인 실시, 안전 모니터링 활동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각 협력기관의 대표들은 성공적인 엘로업 스쿨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개선과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김영찬 기자

## 경남도, 마을공동체 주도 도시재생사업 9개소 선정

### '갈대새미 공유마당 회복' 등 9개 사업 국비 16억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 마련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9곳이 최종 선정되어 16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경험을 축적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초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75곳의 사업 선정지 중 경남도가 9곳으로 '18년 7건, '19년 6건에 이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현수가 갖든 갈대새미 중심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천시 '삼천포의 역사 숨터, 갈대새미 공유마당 회복'(4억), 원에 주민조직 육성 및 마을교육 특화형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김해시 '내외 팍심 살리기, 함께 배우는 문화마을'(2.6억),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과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밀양시 '마을과 더불어 살다'(3.94억), 할머니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조성하는 △거제시 '재생 up, 할매들의 소확행'(4억), 대학과 마을이 협동하여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양산시 '청춘과 함께, 동행해 주님'(4억), 빈집을 활용해 방앗간을 만들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는 △의령군 '청춘마실 방앗간'(3.6억), 송학도분교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을기업을



조성하는 △고성군 '무학마을 소통·소가야 플랫폼 조성'(4억), 세대 간 융합형 마을재생활학교와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남해군 '수리수리 마을 수리'(2.65억), 방치된 빈집을 활용 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거창군 '공유!자생! 죽전만당 공작소'(3.5억)이다.

생 사업비 32억 원(국비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20년 소규모 재생사업은 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9년부터는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도비를 지원해 오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경남도는 올해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 올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고, 7월부터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도대승 기자

# 문 대통령 “재정, 코로나 치료제이자 백신 역할 해야”

## “경제 전시상황… 전시재정 편성한단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

### 3차 추경안 6월 처리 협조 당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선순환 도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시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의 역할을 방파제와 마중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 더 나은 방향을 향하는 재정이냐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계 경제 상황에 관해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선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당위성에 관해 강조했다.

이어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의 역할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벌써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한다”며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안의 내용과 속도에 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경경제 개척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전진성 약화 우려”에 관해선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추동명 기자

# 이용수 할머니 “30년 동안 ‘정대협’에 이용당해

## 지원단체 ‘정신대’ ‘위안부’ 혼용해서 사용 회계부정 유용의혹 “검찰법적 판단받아야



이달 초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피해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단체의 모금 행사가 동원되며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당시 ‘정신대’와 ‘위안부’ 상황이 달랐음에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지원단체가 이를 분류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활동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다”며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았는데 뭣 하러 그 사람들(일본인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할머니는 ‘대만 신주쿠 가미가제 부대’에 끌려가서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소개하며 “공장에 갔다 온 (정신대)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의 준말로 태평양전쟁 후반 일본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면서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1945년 해방 후 국내에서는 ‘위안부’와 ‘정신대’라는 용어가 혼용 사용됐다. 실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초기에는 국내에서 ‘정신대’를 ‘위안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초기 생겨난 단체들의 이름에는 ‘정신대’라는 명칭이 들어갔다.

이 할머니는 “30년 동안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게) 뭘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할 것 아닌가”라며 지원단체들이 이 두 문제를 섞어서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할머니는 지원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정확한 사유도 듣지 못하고 이용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할머니는 과거 농구 경기장을 방문해 모금 행사를 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줄 몰랐다”라며 피해자들이 어떤 이유로 모금을 하

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할머니는 지난해 1월 타계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도 “(정대협이) 한쪽 눈 조금 보이는 할머니를 끌고 다녔다”라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놓고 뻔뻔스럽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그건 가짜눈물이다”라고 질책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지원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할머니는 윤미향 전 이사장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10억엔의 출연금을 내는 것을 미리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 이사장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추가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지원단체들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윤 전 이사장에 대해 “30년을 같이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맘대로 뺏아갔다”라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나갔다”고 강한 언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는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만 이어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친하게 지내며 일본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게 해 일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윤 전 이사장과 만났다. 이 할머니는 19일 만남에서 윤 전 이사장에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전 이사장은 회견 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문정희 기자

# 민주,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수사 결과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5월 7일에 이어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정의연)이 30여년 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금 행사 동원 등으로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30년 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두 기자

# “통합당,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편에 서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했던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낱알이 들여다보고 규명할 예정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기부금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TF를 구성한 통합당은 위원장에 재선의 광상도 의원과 위원으로 재선의 박성중 의원, 김병욱·김은혜·황보승희 당선인을 임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해 할머니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파했다”며 “꽃다운 청춘을 짓밟힌 할머니들께서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주머니를 열었는데 정작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을 적고 오히려 단체에서 그 돈을 유용하거나 자신들을 위해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국민에 보고하고 의혹이 해소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우리의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제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추동명 기자

www.adparkcom.kr

# 기업도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새롭게 창업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www.adparkcom.kr](http://www.adparkcom.kr)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 BI. 원스톱 서비스

**인쇄 + 디자인**   **홈피+기획, 디자인**   **광고 +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PACKAGE DESIGN SYSTEM**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A** PACKAGE Basic — w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템플릿 홈피 + 기본인판

**B** PACKAGE Economic w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피 + 사인시스템

**C** PACKAGE Premier — w 2,000,000  
CI, 또는 BI, 기본, 응용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피 + 사인시스템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

**기업 이미지 메이크업!**

**애드파크** 031-904-8805  
adpark communications 010-7591-7149  
tgpark2043@naver.com

# 이천시, 무기성오니 농지매립 두고 법적해석 달라



## 환경부, 주변 환경 오염시키거나 인체 해를 끼칠 수 있어 경기도내 안성시, 평택시, 여주시, 화성시 4개 지자체 허용

최근 경기도내 개발의 붐을 타고 자원순환기법상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폐기물보조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무기성 오니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일부 구분된다.

주민 K모씨(63세)는 신둔면장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후 "현행 법상 2미터이상 성토시 불법 농지성토가 의심된다"며 "이천시 담당과에 공문으로 농지성토 관련 위법사항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확인결과 신둔면 공사 현장 성토재는(무기성오니) 폐기물로 불수해"고 전해왔다.

무기성오니(슬러지)는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해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토사와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한편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우기철 맞아 하천구역(소하천)인 신둔천으로 유입되어 남한강 팔당상수원이 오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천/유기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법령 시행지침인 「농지업무편람」을 통해 "무기성오니는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위반하고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성토를 이천시 농지에 매립하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허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성시, 평택시, 여주시, 화성시 4개 지자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

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무기성 오니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일부 구분된다.

주민 K모씨(63세)는 신둔면장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후 "현행 법상 2미터이상 성토시 불법 농지성토가 의심된다"며 "이천시 담당과에 공문으로 농지성토 관련 위법사항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확인결과 신둔면 공사 현장 성토재는(무기성오니) 폐기물로 불수해"고 전해왔다.

무기성오니(슬러지)는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해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토사와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한편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우기철 맞아 하천구역(소하천)인 신둔천으로 유입되어 남한강 팔당상수원이 오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천/유기영 기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언택트 관광지로 변모

언택트 경북관광지 23선에 선정  
식물분류원, 암석원 33개 전시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사장 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원장 김용하)은 지난 13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언택트(비대면) 경북관광지 23선'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면적에 조성되어 있어, 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관람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3,145종의 다양한 식물과 식물분류원, 암석원 등 33개 전시원을 통해 계절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숲길을 거닐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더 나아가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저한 방역 및 소독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든 국민들을 위해 전시원과 숲길을 아름답게 재정비하였다."며, "수목원에 조성된 다채로운 정원과 자연을 보며 휴양을 즐기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김해시 산림복지시설 27일 부터 재개관한다

목재문화박물관·분성산 생태체험관  
재개관은 5인 이하 개인관람만 가능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했던 김해목재문화박물관과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을 오는 27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휴관 이후 93일만이다.

시는 정부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개인, 집단방역 핵심수칙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재개관 후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목재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과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전시실이며 5인 이하 개인관람만 가능하다.

단체관람과 체험은 추후 방역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재문화박물관의 목재 체험놀이터와 목공체험, 숲체험실, 다목적실, 북카페는 운영하지 않으니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시는 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채운 축제를 해 발열, 호흡기 유증자,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등은 출입을 제한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람객도 입장을 제한한다.

아울러 전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각 시설물 수시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등 강력한 방역체계도 준수한다.

이외에도 입장 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다른 관람객과 2m 이상 거

리두기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시간당 동시 입장 가능인원을 목재문화박물관 30명,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10명으로 제한한다.

이 2개 시설은 재개관 후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휴관 중 옥내·외 시설물을 정비했다.

목재문화박물관은 목재 건축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오일스테인 도색을 했고 쾌적하고 안전한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정비했다.

박물관 수장고의 보존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목공체험관에는 목공예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한 목공기계도 배치했다.

분성산 생태숲은 야외 황톳길, 야외 어린이놀이터, 생태체험놀이터, 야생화원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상시 개방해오고 있다.

강성식 산림과장은 "산림복지시설 재개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산림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레저 활성화 상생모안을 찾아라

경북 수중레포츠 활성화방안 간담회 개최  
해양생태수중박물관, 에코다이빙 도입 논의



경북도는 최근 동부청사에서 도, 시·군,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중레저연합회, 다이빙리조트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수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양레저활동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내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에 따라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에 대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계적인 수중레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아름다운 바다 속 생태 비경(祕境) 12선」에 포함되어 있는 꽃동산(울진), 왕돌초(울진), 죽도(울릉), 독도(울릉) 4곳을 활용한 수중레저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어촌 지역에 해녀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마을어장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마을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해 수중환경 보전활동, 해양레저

체험 관광상품 개발 운영 등 어촌계와 수중레저 사업자간의 공존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각품을 전시한 수중 박물관 조성, 다이빙과 함께하는 해조류 보

존-복원 프로젝트 등 수중레저 활동자가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에코다이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남 소방본부, 품질검수단 시범운영

경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시 소방시설 불량설치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 한다.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신축건물의 최초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에 부실·불량 시공이 많다"는 지적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완공예정인 신축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궁극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완공예정인 도내 신축건축물로서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연면적 3,000㎡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 10개소에 대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허석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신축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소방대상물의 신축단계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한 층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과수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나태수 기자

**글로벌 첨단기업의 비즈니스 메이트, SK머티리얼즈입니다**

특수가스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No.1이 되기까지.  
SK머티리얼즈는 검증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분야 세계 1위를 넘어 글로벌 종합 소재 기업으로 또 한번 도약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변화를 멈추지 않고, 모두에게 가치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수가스 세계1위  
상용화(FC) 세계 점유율 1위를 비롯, 세계 최대 초대형용 리프팅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  
각종 기판으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으로써의 기술력 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라싸 골프장 '위험천만'

### 하천 막아 만든 저수조 큰 피해 우려 주민 안전은 뒷전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으로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라싸 골프장이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 연곡리 소재 라싸 골프장은 2020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민원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는 6월 시험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골프장 맨 아래 하천을 막아 만든 저수조(헤저드)는 너무 위험하다. 지난 2018년 8월에 게릴라성 폭우에 하천이 범람해 연곡리 일부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에는 펜션과 주택가가 자리잡고 있으며, 생식품사업을 하는 농장도 있어 골프장 저수조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생식품 공장 관계자는 "안전보장 없이 만들어진 저수조에 관한 민원을 제기 했었으나 관련 담당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저수조는 안전을 위해 제방을 콘크리트로 공사로 마감 해야 하나 물에 취약한 마사토로 마무리를 하면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포천시의 회 행정감사 당시 송상국 시의원은



골프장 공사 관련 저수조가 터진 것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포천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송상국 시의원은 "주된 원인은 라싸 골프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담당 과장과 같이 같은해 12월6일 현장답사를 하기도 했다.

골프장 공사를 할 때 러프, 헤저드, 병커라는 코스가 있다. 헤저드는 인



공호수다. 인공호수(저수조)에는 대용량의 물을 담수 한다.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지역 주민 A씨는 "현재 큰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 관청은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4일 포천시 이동면 하루 21.5mm의 비가내리어나 완공을 앞둔 저수조가 일부 유실을 보이고 있다.(사진) 이런 위험을 계속 방치해야 하는지 시청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골프장이 완공 되고 시험 오픈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포천시는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 라싸골프장 저수조의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받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천/김승근 기자

## 장흥통합의료병원, 통합의학 암 재활 치료 서비스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노세웅 병원장을 필두로 내과 전문의, 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의료팀을 통해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암 환자들에게 통합의학 암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률 1위인 암은 발생 시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질환이다. 최근 치료법의 발달로 암에 걸려도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치료 과정 중이나 치료 후에 여러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예후가 많다.

암환자는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전신 피로감, 기력 저하, 수술 부위 통증, 저림, 부종, 관절염, 근육 등 여러 신체적 증상을 겪는다. 또한 암에 따라 여러 나쁜 예후가 따르는 경우가 있다.

뇌종양에 의한 안면 마비와 사지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식도암·인두암에 의한 삼킴 곤란이 발생한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팔과 손이 붓게 되며, 자궁암·직장암·전립선 환자의 경우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 감염과 괴사가 발생하는 림프부종이 발생한다.

이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암 진단 시 환자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 단계에서는 암 및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능 장애를 평가하고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유방암 수술 후 어깨 통증과 상

지 부종으로 내원한 환자는 "아름답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재활의학과 원장님께서 암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전문 암 재활 치료와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며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세웅 병원장은 "암 재활 치료와 더불어 통증 완화, 면역력 증진, 암세포 감소 효과가 입증된 고주파 온열암 치료로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며 "기력 회복을 돕는 면역주사요법(고농도 비타민 주사, 미슬토 주사, 홍선주사치료), 개인 맞춤형 대체보안요법(고압산소요법, 온열요법, 광선 치료, 아로마 요법, 예술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마음의 치유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김종현 기자

## 부산시, 위축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앞장'

###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 간 워크숍 개최 건설업체 물량 수주 방법 등 '꿀팁' 제공

코로나19와 주택건설 경기의 어두운 전망으로 더욱 위축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또 한 번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2년간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또 한 번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2년간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또 한 번 발 벗고 나섰다.

이 자리는 지역 전문(설비)건설업체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과 현장 참여 방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 기회가 되었다. 협력업체 등록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감 확보를 위한 입찰 참여에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중요한 일이다.

부산시는 지난 2년간 지역 중소전문(설비)건설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Scale up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에는 이 중에서 26개사를 104개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는 Scale up 대상을 25개사로 확대하여(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 지난 4월에 착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 의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협력업체 등록의 기회는 물론 기업 체질이 강화되므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나대승 기자

## 순천시,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과 함께

###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상생협약' 5개 점포 3개월 간 임대료 30% 인하

전남 순천시는 22일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도시재생의 부차적인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과 함께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시는 지난달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 건물주 및 임차인들과 상생협약을 가진데 이어 지난 농협, 축협등 금융기관과의 상생협약을 맺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 임대료 운동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순천역세권에 두 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3개월간 임대

료 30%인하 혜택을 받아 경영부담을 덜게 됐다.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과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해온 농협과 축협이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분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두 기관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에서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화순군, '화순에서 먼저 살아가기' 참가자 모집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5일부터 '화순에서 먼저 살아가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가기' 신청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전용 누리집(live.jeonnam.go.kr)에서 하면 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도시민이 화순에서 일정 기간(50~60일) 살면서 농촌·농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도시민은 귀농·귀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며 귀농·귀촌 지역, 시기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일반형과 특화형, 2가지다. 일반형은 농촌 생활, 현장 체험, 농사 체험 등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귀농에 앞서 먼저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화순을 들국화마을,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있는 백야산 인근의 노치마

을, '흰 학이 구름처럼 마을을 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백운마을에서 진행한다.

특화형은 1차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과 전문 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특화형 프로그램은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이 있는 이서면 야사마을의 뽕모실영농조합법원에서 운영한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가기는 마을 리더,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달리 특화형과 일반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완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마을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군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이윤상 기자

# 농협 파머스 마켓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쇼핑은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검색창에서 **농협파머스마켓** 검색하세요!!  
<http://nhfm.co.kr>

발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함]  
농가의 얼굴이 담겨 있는 [신뢰성]  
친환경 재배에 의한 [안정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저렴성]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애향심]











- 농산, 공산, 축산물, 수산코너 외에도 로컬푸드, 즉석식품, 선식, 문구·완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약 1만명의 멤버를 보유하고있는 영주농협 파머스마켓의 밴드를 통해 매주 행사 및 다양한 소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밴드를 통해 공동구매도 시행하였고, 밴드 멤버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농협파머스마켓 쇼핑용 모바일앱이 개설되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신 후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DREAMING WITH YOU AND NH

농촌과 도시가 서로 행복해지도록 영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 교산광역대책 확정, 하남시 5철5고5광 교통혁명시작!

## 기존 광역교통대책 대비 약 2배 2조400억원이 투입 하남시 5철·5고·5광 지하철9호선 조기착공도 추진!!!

하남시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하남교산 신도시(3만 2천호)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총 20개의 ▲도로, ▲도시철도, ▲BRT, ▲광역버스(차고지), ▲환승시설 등 각종 교통대책을 총 망라하는 광역교통대책으로서,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2배 이상인 약 2조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통대책이다.

먼저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는 강남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대책으로 약 1조5000억원을 광역교통비용으로 조달해 예비타당성을 통과, 국비 확보 등 공사 지연 요인을 배제하고 2028년 내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계획은 기존 천호~하남 BRT를 교산지구 내로 연계하고 신설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에 BRT 계획을 포함한다.

신도시 광역대책 중 최초로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차고지 확보비용’ 100억원을 확보해 입주초기 충분한

버스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또한, 교산지구 내 뿐만 아니라 9호선(보훈병원역), 하남드림휴게소 등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해 하남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도모했다.

도로대책으로는 총 13개의 도로 신설 및 확장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하남시 동서간선도로 축(객센터널~국도43호선,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을 신설한다. 이로써 기존 천호대로 및 서하남로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전망이다.

또한, ‘국도43호선 도로확장 및 개선’을 통해 장래 증가하는 교통량과 지역개발에 대비하고 ‘황산~초이간 도로’를 신설해 황산사거리 교통정체를 분산시킨다.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으로 서하남IC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감일~고골간도로’를 신설해 금암산으로 단절된 위례~감일~교산~원도심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누락된 ‘초이IC 북측방면 연결램프’를 급변 포함시킨 것도 성과라 하겠다.

하남시와 서울시 경계인 동남로도 급변 확장하여 감일지구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토록 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약 1년 6개월간 중앙정부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작년 발표한 하남시 교통혁명 5철·5고·5광의 시작”이라며,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GTX-D 연장 등 하남시 다른 지역 교통 현안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이명희 기자

# 안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최대 3천만원 보장

## 내년 2월까지 최대 3천만원 보장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장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법급,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2019.3.1~2020.2.29)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길대성 기자

# 광명시,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설기능 강화

## 광명시, 선별진료소 시설기능 강화 감염위험 DOWN, 업무효율성 UP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음압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오다 지난 4월 4일부터 사계절 검사가 가능한 ‘냉·난방 겸비 격벽형 음압컨테이너 선별진료소’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격벽형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는 검사자와 의료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의료진은 레벨D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의료용 폐기물 배출량도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검사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에 뜨거운 햇빛과 비, 바람 겨울철 눈을 차단해 줄 전자동 접이식 가림막을 설치해 검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역할

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해외입국자, 클럽 방문자 등 코로나 의심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1일 평균 전화상담은 200여건이 되며 70여명의 검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초·중·고교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검사자는 더욱 늘 것이라 생각된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시보건소와 광명성애병원 2곳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보건소는 주7일, 월~금 9시~18시, 토~일 10시~17시, 광명성애병원은 주6일, 월~금 09시~17시, 토요일 09시~13까지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02-2680-2577), 광명성애병원(02-2680-7115)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정재두 기자

# 하남,한강상수원내남시행위단속

## 하남,한강상수원내남시행위단속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불법 어로행위·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 내표지관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체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이명희 기자

# 김포한강신도시에 수상레저시설 들어선다

## 한강신도시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한강이음버스 타고 테마공원에서 힐링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장미원, 물놀이장, 수상레저시설 등 김포한강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 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수공원, 김포한강중앙공원 등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대표적 공원과 라베니체 금빛수로는 시민들의 문화와 레저, 휴식과 힐링을 위한 다양한 특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대표공원 중 하나인 마산동 소재 호수공원에 장미원, 피크닉장, 야외무대가 들어서고 인근 마리미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설치된다.

호수공원의 명물이 될 장미원은 식재공사가 한창으로 6월부터 절정을 이루는 수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 있다.

장미원은 3,900㎡ 면적에 총 8,397주의 장미가 식재되며 사각 파고라, 평의자, 앉음벽 등 휴게시설과 조형물,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김포시는 올해 1단계 조성을 완료한 뒤 단계별 추가 공사를 통해 장미원을 김포한강신도시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달 초 조성 공사를 마친 호수공원 피크닉장도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피크닉존에는 평상과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휴게공간에는 그네벤치와 파고라가, 꽃마당에는 다양한 식물과 LED 조형물이 설치된다.

호수공원 한편에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위한 야외무대도 조성된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야외무대는 무대와 조형시설, 잔디로 조성되는 관람석이 꾸며진다.

마산동 운수산 자락에 위치한 마리미공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조성된다.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물놀이장에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장기동 소재 한강중앙공원에는 초화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870㎡ 면적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식재해 시민들의 발길이 잦다.

김포/차재문 기자

# 이천시, 안전한 등교개학 위한 마스크 무상지원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등교개학에 맞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스크는 이천교육지원청으로 2만 6천매가 지원되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번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천교육지원청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시내 학원 곳곳을 돌며 방역지침을 전파하고 체온계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시의 이런 숨은 노력 덕분에 이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학생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가장 큰 일상의 변화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으로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국가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 하면서 “특히 가정에서 마스크를 제 때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등교수업 중 마스크 공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이번 지원된 마스크가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천/유기영 기자

# 파주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총력 대응

파주시는 적성면 적암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해 긴급 확산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이 있는 잣나무 1본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됐다.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급실무대책회의를 갖고 긴급방제 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주변 지역 추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해 헬기를 활용해 정밀예찰도 나섰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적기에 맞춰 매개충이 활동하는 5월~9월에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화기인 10월~12월에는 피해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금지 및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안내에 대해 현수막 설치 및 마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연천군의회,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 (주)북서울 폐기물처리사업계획과 관련 피해 우려 사업계획부본 재검토요청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80여분 가량 진행된 최종원 청장과의 면담에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연천군에 고능리 일원에 대한 (주)북서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재보완서를 검토 의뢰했음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과 각종 정책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켜진 청정 자연환경마저 보전하지 못하는 절박한 연천주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수차례의 요청 끝에 마련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군사 및 각종 정책규제로 낙후되어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 거점도시로의 역할, 천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기대 등 연천군의 현황들을 설명하면서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연천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전곡읍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곡읍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예정거리 보다 멀리서 발생하는 동두천시 마니커공장의 악취만으로도 더 할 수 없는 불쾌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 악취마저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여부가 연천군의 사할이 걸려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5월 (주)북서울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사업구역에서 발견된 잣빛개구리 등 일부 천연기념물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와 지난해 1999년 7월 31일 3시간 동안 내려 200mm 내외의 강우가 퍼부는 사례를 고려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검토 중인 우수배제시설 산출방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연천/김승근 기자

# 안산시, 경기지역 최고 수준 출산장려정책 펴

### 아이 한 명당 각종 양육수당 최대 8천만원 지원 미래 이플 인재로 자라나도록 정책 확대할 것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불어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경기지역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 가정은 각종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며, 외국인 주민의 아동도 1천65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단순한 현금지원 외에도 임신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편의를 위해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 중이며,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환경 진단사업도 펼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지역 최고 수준인 안산시 지원책을 살펴보면, 출생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83개월 동안 10만원씩 기본으로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은 넷째부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에 입학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의 한도에서 본인부담 특급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 1명당 1천30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는 누리과정운영 지원비와 영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비로 1인당 모두 3천5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다섯째 아이는 대학교 진학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8천150만원 상당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다문화마을특구가 소재한 만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보육료를 1천584만원씩 지원받으며, 우유급식비도 62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 가운데 출산지원용품은 경기지역에서 안산을 포함해 14개 시·군만 운영 중



이며, 다자녀 학비 지원 정책은 7개 시·군만, 다자녀 양육비는 4개 시·군에만 존재한다.

특히 관내 다자녀 가정은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밖에도 지난해 5월16일 임신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하고 한 달 평균 510여건을 운행 중이다.

이울러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올 연말까지 공공어린이공원 131개소를 대상으로 놀이환경 진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성 기자

#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안내 문구 넣어 발송

###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 자동차세 공금증 해소

용인시 수지구청은 22일 명의이전 및 폐차말소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민원인이 자주 묻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발송을 시작했다.

자동차세 수시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 특이 사유로 한달 뒤 일할계산해 부과하는데 이를 이중 납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구는 납세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앞면에 '자동차세 이렇게 공금하셨죠' 코너를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매월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에 대한 수시분 고

지는 1000여건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고지서를 발송한 후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성 기자



# 2020년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 시작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을 소비자 신뢰하는 브랜드로 관리하기 위해 파주시 내 콩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0년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는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를 통해 파주장단콩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파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생산이력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생산이력제 신청을 통해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 북파주농협에서 수매(작년594톤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장단콩축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파주/김성태 기자

# 연천군, 백학자유로 리조트 간 업무협약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세계적 보존 가치를 보유한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NGO 단체인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및 지난 2월 1일 연천에서 개장한 백학자유로 리조트와 20일 연천군청 군수실에서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에 체결된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와의 협약식에는 상임대표인 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이현 교수를 비롯해 백승광대표, 김경도이사 그리고 최성욱사무국장 등과 김광철 군수 및 이종민 관광과장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연천/김승근 기자

# 광명시, 기후위기 대비 소외계층에 손을 내밀다

###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추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면 해당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2019년 에너지바우처는 2833가구에 31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여름 바우처 7,000원, 겨울 바우처 88,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10,000원, 겨울 바우처 124,000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5,000원, 겨울 바우처 152,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광명/정채두 기자

# 고양시, 시청 방문시 텀블러 할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청 주변 총 7개소 커피전문점과 협약을 체결, 텀블러 이용 할인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텀블러 등 개인용품 사용을 권장하고자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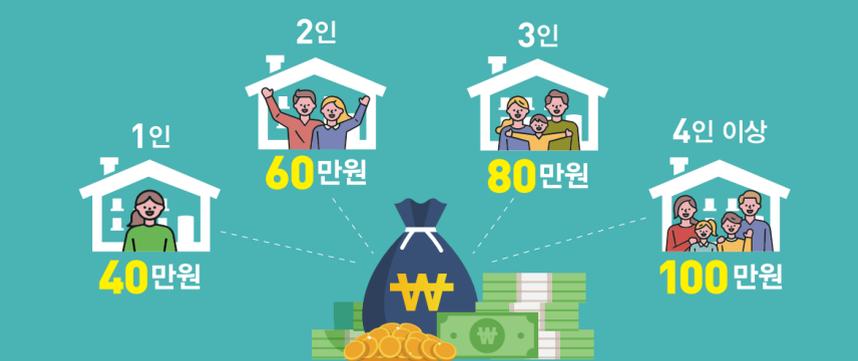
텀블러 이용 할인 커피전문점은 '카페모퉁이', '카페 루', '커피자루', '카페수', '애쉬베리커피', '커피 바람의 날개'를 달다. '나는 카페(고양시청 의회 건물 1층)'로 총 7개 매장이며, 개인 텀블러 이용 시 최소 200원 ~ 최대 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은 "고양시청과 시청 주변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실 때 텀블러 이용을 습관화하면 많은 양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양시는 100% 드립니다

### 4인가구 기준 약 정부 87만원, 고양시 13만원 분담



**지원대상** 고양시민 모두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사용처** 경기도내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 ※ 잔액 환급 불가

# 지원금 신청 방법 꼭! 확인하세요!



-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02 오프라인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방문접수불가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가능

**신용기간 > 5월 11일(월) 07시~** 온라인: 세대주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신용기간 > 5월 18일(월) 09시~** 오프라인: 세대주 사용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신용기간 > 5월 18일(월) 09시~** 오프라인: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대상 가구의 세대주,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5월 18일(월) 09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경북도, 지역 중소기업제품 해외수출 활기

### 문경미소, 한국에플리즈, 코스엠 등 특산품·화장품 코로나19 중에도 동남아시아, 중국 북방시장에 수출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소재한 특산품 및 화장품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신 북방시장인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문경미소(김경란 대표이사, 문경시)의 오미자음료 2만 달러 선적을 비롯해 ㈜한국에플리즈(한인섭 대표이사, 의성군)의 사과사주 90만 달러, 웰빙바이오(백지원 대표, 의성군)의 흑마늘·녹음 건강기능제품 3만 달러, ㈜코스엠(김승현 대표이사, 칠곡군)을 비롯한 화장품 제조사들의 4만 달러 등 1백만 달러의 수출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수출중소기업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문경미소는 오미자제품(음료, 김)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5월 18일 약 2만 달러 상당의 제품 선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폴란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시장개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

냐?(SBS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플리즈는 사과와인 및 소주 등을 제조하는 주류업체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약 90만 달러(4월말 기준)를 수출했고, 연말까지 2백만 달러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주 수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에플리즈의 한인섭 대표이사는 지난 5월 20일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뚫고 조속히 안동소주, 안동소주 일품 등 우리 민속 전통주 10만 달러(20톤규모)를 선적해 싱가포르 면세점에 첫 납품했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선적에 참석한 안동소주 김연박 대표는 "이번 수출로 국내생산 쌀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통주 수출협의회를 통하여 각국 대사관 리셉션을 주류공급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한인섭 회장은 "이번 수출을 통해 현지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후 동남



아 등 다른 국가의 면세점에도 민속 전통주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기대에 부풀었다.

웰빙바이오는 마늘 및 녹음엑기스 제품 등 건강기능성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홍콩, 동남아 등으로 3만 달러(4월말 현재)를 수출하였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엠과 ㈜코리아비엔씨를 비롯한 화장품 5개사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등지에 화장품 전문무역사절단으로 다녀온 이후 지난 5월 초 4만 달러를 수출 완료했다. 지속

적인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장품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의 수출증대에 최대한 지원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비롯하여 SNS홍보마케팅, 사이버상담회, 해외지사화, 물류비지원, 해외 소평몰, 해외규격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영주국유림관리소, 지역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장군봉 선도 산림경관단지 내  
민간 주도 산촌 소득공간 마련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목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숲의 하층부에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 수익구조인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2022년까지 10ha 규모로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자연 발생되는 두릅 생산지에 '갈산산촌애' 마을기업이 주관하여 수확량 및 채취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구역 4ha를 비롯, 관리소에서 산촌소득 모델 개발을 위하여 시범 조성된 1ha(당귀순·어수리·곰취·더덕·산마늘·두릅)를 포함한 총 5ha가 조성되어 있다.

단지 조성을 주도하는 '갈산산촌애' 마을기업은 작년 12월에 남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성장, 일자리 등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과 귀촌인 10명의 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김명중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민·관 협력으로 시작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가 잘 조성·관리되어 산촌주민의 소득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유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영주/정승초 기자

## 영주시,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탄력' 받아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추진  
'人蔘海' 건강 골목길 조성사업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일원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 영주시(시장 장옥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풍기읍 서부리 '人蔘海' 풍기읍 건강골목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

영주시는 2014년 선정된 영주 1,2동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7년 선정된 남산신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어 3번째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부리 지역은 풍기역과 풍기인삼시장의 배후거주지로 주택 노후화와 불량 담장이 밀집되어 곳으로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길의 콘텐츠를 개발과 주민들 교육을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불량한 골목길에 벽화, 가로등 확충, 조경설치, 골목정원 조성, 도로정비 등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

하게 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중요한 재생지역인 풍기읍 지역에 실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영주시는 소규모 재생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풍기읍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종태 도시과장은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며, "풍기읍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 경주시, 자동차산업에 SW 신기술개발 지원한다

과기부 공모, 중소기업 SW융합 상용화  
전문 인력 양성 계기 마련, 일자리 창출



경주시는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업체 S/W 기술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경북도내 7개시군(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칠곡, 김천)이 참여해 지난 3월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총 132억4800만 원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SW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SW융합 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SW융합 청년 인턴쉽 고용, 전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 중 경주시는 총 13억 2천만 원(국비 6.6, 도비 1.98, 시비 4.62)의 사업비로 올해 1차 년도에는 2억 원으로 경주시 소재 SW개발 업종 기업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비, 연구실형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경북SW융합진흥센터에

신청하면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업비 13억 2500만 원(국 5.75, 도 2.5, 시 5)으로 SW융합클러스터 1.0사업을 추진 완료해 R&D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총 24건을 지원, 신규고용 43명, 창업 9개사의 성과를 이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기존 R&D, 시제품 제작 등 H/W분야

지원 사업에 더해 S/W분야까지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대·성장을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경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번호 18366) 및 투자유치과(☎054-760-2578),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사업공고란) 및 경북SW융합진흥센터 ICT융합상담실(☎054-223-2182)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경주/한반식 기자

## 경주시, 다중이용시설에 체온계배부

경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노인 다중이용시설에 체온계를 지원한다.

시는 노인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703개소, 노인교실 4개소, 무료급식 경로식당 4개소 및 YOYO클럽 2개소, 여성실버합창단 1개소,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1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 등에 비접촉식 체온계 727개를 배부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노인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감염대비 포스터 부착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배부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 감염대비를 위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방역체계를 미리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감염대비에 우선 사항"이라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영천시민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50명 입학



교육문화센터, 시민대학 강좌 시작  
시민 문화생활 지원하고 활력 불어

영천시는 지난 25일 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교육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영천시민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영천시민대학 입학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설 방역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올해 영천시민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개강 시기가 늦춰지고 강좌 수와 모집 인원이 감축되었으나,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재충전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영천시민대학은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규하 일관영천성수북대청기법사업과 집행위원장의 '좋은 시민, 좋은 삶'을 시작으로 스타일UP 이미지메이킹, 인문학으로 본 영천의 역사, 길의 도시 영천(조선통신사와 말고길) 등 다양한 강좌들로 이어지며 특히 마크라메, 색연필 보타니컬 아트, 보자기 아트와 같은 실습강좌는 교육생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하다"며, "기다렸던 영천시민대학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돼 즐겁고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천/한반식 기자

## 영주선비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개방한다

2단계 부분 개방, 디지털자료실 포함  
열람실 청렴도 향상 위한 컨설팅 실시



경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과 풍기분관(관장 최교만)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26일부터 2단계 부분 개방으로 자료실 개방에 이어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 개방한다.

지난 7월에는 도서관 1단계 서비스로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개방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26일에는 도서관 2단계 서비스로 제한되었던 디지털자료실과 열람실을 추가로 개방하고 열람실을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한자리씩 띄워 열람실 자리를 배치하고 비데면 업무처리를 위해 자료실에는 가림막을 설치했다.

최교만 영주선비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2단계 부분 개방으로 이용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적 피로도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관장 최교만)은 5월 22일(금) 도서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 컨설팅

팅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은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금년도 청렴도 측정 목적, 부패신고자 보호, 올해 달라지는 청렴정책 홍보 등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공직자에 대한 청렴 마인드를 높였다.

최교만 관장은 "양질의 청렴 교육을 통하여 청렴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청렴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도서관 출입은 1층 정문으로만 가능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거쳐 방문 시 손소독 후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주/정승초 기자

## 예천군, 축사냄새로 고민 농업인들 오이소!

농업기술센터, 축산용 미생물로  
축사 악취 제거·105톤 본격공급



예천군농업기술센터가 축사 악취 제거와 퇴비부숙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축산용 미생물 105톤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예천군은 2009년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건립해 매년 고품질 농업용 미생물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지난 2018년부터는 예천축협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들의 축산용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우,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는 1,300여명 조합원들에게 축산용 미생물인 6종, 4종, Bt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5월부터 미생물생산량을 늘려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축산용 미생물을 퇴비부숙에 사용하면 악취가 제거될 뿐 아니라 파리 및 벌레 발생을 억제하고 퇴비 부숙시간을 1/2에서 1/3까지 단축시켜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축산용 미생물 사용 시 유의사항은 4종 미생물을 생균제로 사료에 혼합 급여 시에는 당당 20cc 투입하면 되며, 쌀겨발효 시에는 쌀겨 100kg기준 4종 미생물 300ml와 흑설탕(당밀) 1kg, 물 30~40L를 넣어 2~3주 동안 완전 발효 후 먹으면 된

다.

퇴비부숙 및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6종 미생물을 100배 희석해 축사 및 퇴비에 뿌려주면 되며, Bt 미생물을 함께 사용 시 파리·모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4종 미생물을 이용해 쌀겨를 부숙하여 소에게 먹이고 있는데 소의 건강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더불어 6종, Bt 미생물을 축사에 뿌렸더니 냄새도 줄었고 파리·모기 등 벌레도 줄었으며 퇴비부숙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최효일 소장은 "관내 축산업 농업인들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더위지는 여름철 축사 악취발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정승우 기자

# 거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 소비 효과 “톡톡”

사용률 55.4%, 상인들 “매출액 50~60% 증가했다”

시민들 소비촉진에 고현시장 모처럼만에 활기 넘쳐

거제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톡톡히 내며 지역 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경남 거제시 고현시장 골목은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쳐났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예산을 매칭해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속속 소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고현시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과 의류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시장 곳곳에는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

시는 대형 상점과 백화점 등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자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고현시장에서 봉화한우정육점을 운영하는 이성익씨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출이 50% 가량 증가했다”며 “코로나 여파로 계속되는 매출감소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행복하다”고 전했다.

윤기홍 고현시장 상점가 상인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뜸 끊겼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덕분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 시장이 시끌벅적하다”며 “매출액도 대부분 50~60% 이상 늘어 오랜만에 상인들의 활짝 핀 얼굴을 보니 정말 좋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어 윤 회장은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소비가 다 끝나면 다시 예산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도 있다”며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을 더욱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87%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선불카드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의 55.4%인 55억 7천만 원이 사용됐다.

주요 사용처는 마트 등 유통업, 음식점, 정육점·정과물·농수산물 등 식료품, 병원·약국, 이미용, 기타 등으로 60% 이상이 식음료, 생활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김영한 기자

# 부산시, 알기 쉬운 민관협치 홍보책자 제작·배부

“뚜디앤뚜디의 민관협치 알아보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 웹툰형 책자



부산시는 민관협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웹툰 형식으로 민관협치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홍보책자는 민관협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를 하고자 협치에 대한 Q&A 등으로 구성되었고, 협치 관련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시민단체,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 형식을 활용하여 두 캐릭터가 대화로 민관협치에 대해 10편(정의, 필요성, 효과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월 11일 협치부산 홈페이지(www.busan.go.kr/gnance)를 개설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협치의제사업 신청 및 협의 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시민원탁토론을 열고 이

후 부산시민협치협의회 회의의 속의과정을 거쳐 10개 분야 36개 의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6월 5일까지 의제에 대한 시정협치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민관협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홍보책자가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김영한 기자

# 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사업 추진하다

공유경제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단체 대상 공유경제 통해 경남형 뉴딜사업 적극 추진

경남도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경남도/나대승 기자

# 김해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물을 측정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해주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율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한다.

또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현대자동차부산서비스센터가 함께 참여해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전문적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구 생활지원과장은 “김해시는 대기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무료점검 외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 김해시 “사업장에서 식물 테라피 효과 누려요”

올해 5개 사업장 설치 근로환경 개선 1억5000만원 투입, 휴게실 등에 설치

김해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내 스마트 가든볼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시는 골든루트일반산단과 안하·내삼농공단지 내 5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내 4개, 하반기 1개 사업장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를 완료한다.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한 사업장 당 3000만 원을 투입해 휴게실 등지에 바닥 가로 세로 4m에 높이 2.2m 크기 큐브형을 설치한다.

스마트 가든볼은 형태에 따라 큐브형과 벽면형으로 나뉘며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을 자동화기기로 관리, 휴식과 치유, 관광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정원으로 실내 정화식물과 휴게시설, 식물자동화관리시설로 구성된다.

사업장은 스마트 가든볼을 직원 휴식 공간, 티타임 공간, 자연친화 회의실, 사내 북카페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기 중 휘발성 유기물질을 흡수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백향금, 스킨담서스, 스파티필름, 아글라오네마, 아레카야자 등을 식재해 식물 테라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원의 치유, 휴식 효과는 이미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한 국정 원 디자인 학회에서 2017-2019년 수행한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휴식·관광용 정원 연구개발자료에 의하면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 모두 정원 체험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가든볼은 IoT 기술을 활용해 조도와 급수, 바람, 공기정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정원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자동관수시스템과 조명 제어 가능한 생장조명이 설치돼 있음은 물론 산소발생기와 음향장치를 추가하면 스트레스 저감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공기질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볼 사업을 추진한다”며 “향후 사업 효과를 파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 경남도인재개발원, 도서실 민간 개방 운영

지역민 우선 구입, 대출서비스 제공 전염병 대비한 전자도서 구입 확대

경남도 인재개발원은 도서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도서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교육생과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던 도서실을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원가입, 전자도서 구입 확대,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도서 구입 등을 실시한다.

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이 도서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실을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신간도서와 전자도서도 지역민들이 읽고 싶어 하는 도서를 우선하여 구매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신간도서 구입을 신청하면 매일 신간도서 구입 시 우선 반영하며,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 가능한 전자도서도 반기별 구입 시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보관기간이 지난 잡지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아울러 주민이 도서를 반납하려면 도서실 개관시간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도서실이 있는 경남도 서부청사 입구에 도서반납함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나대승 기자

## 깨끗한 숨 따뜻한 심 행복한 삶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따뜻한 심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에너지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9.2%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 전주 원도심,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활력 입힌다

##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서서학동, 금암동, 노송동 등 3곳 선정 원도심마을을 주민 스스로 살기 좋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

낙후된 전주 원도심 마을을 주민 스스로 살기 좋게 바꿔나가기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서서학동 청춘 STAY'와 '금암동 금빛마을 만들기', '노송동 물양벌 CCBL 도시재생 챌린지' 등 3곳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해 낙후된 마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전주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기존 덕진동, 서노송동, 중앙동 등 3

개동을 포함해 총 6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먼저, 서서학동 '청춘 STAY 사업'의 경우 노후된 건축물로 밀집된 완산칠봉 자락에 있는 불모골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방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외진 골목길에 정원을 조성하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을축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암동 '금빛마을 만들기'는 한때 금융기관과 연문사가 밀집돼 있었으나 신시가지 개발과 동시에 쇠퇴

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맛집을 소재로 한 골든 푸드북을 제작하고 마을의 음식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쓰레기, 주차문제가 있는 공간을 정원으로 만드는 골든가든도 조성할 예정이다.

'물양벌 CCBL 도시재생 챌린지'의 경우 노송동 선미촌 문화재생권역과 전사마을 소규모 재생권역 사이의 지역적 소외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세부적으로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의 반려식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또 율타리를 정비하고 교육공동체 활동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2018년에 서노송동과 덕진동에 이어 2019년에는

중앙동이 대상으로 선정돼 마을계획 수립 후 재생사업을 본격화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노송동에서는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마련한 마을공작소를 중심으로 목공교육, 천연염색 교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2019년 선정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동에서는 커뮤니티 농원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정원도 만들어 가꾸어나가고 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에서도 마을공동체가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 보성군,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황금어장 만든다

## 보성군 점층어 10만 미 방류 상반기 190만 미 추가 방류 계획



보성군은 지난 20일 벌교읍 상진항, 득량면 선소항, 회천면 군항에서 수산 종자 10만 미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어촌계장 및 어업인들이 함께했으며 보성군 연안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점층어 처어 10만 미가 방류됐다.

방류한 점층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질병검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어종으로 관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강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산 종자를 방류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대하 140만 미, 감성돔 26만 미 등 190만 미를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근 어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와 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방류 후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근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수산종자 방류로 풍부한 연안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정필 기자

# 여수시, MICE산업 육성 '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 성료

## 관·학 합동 비대면 MICE행사 추진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거북선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1일 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 '여수 미래 MICE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로 여수 미래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의 '지역특화 마이스 활성화 전략'이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6팀, 한영대학교 3팀 등 총 9개 팀이 여수 MICE콘텐츠 아이디어를 녹화영상으로 발표했다. 질의응답도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했다.

사전에 모집한 일반참가자 200명도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심사에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섬'으로부터 확장되는 여수의 관광콘텐츠와 MICE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건국대학교 거북선팀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경연대회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 50%, 온라인으로 시청한 일반 참가자 점수 50%를 합산해 평가했다. 시상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이디어상 등 총 4등으로 시상상과 여수사랑상품권, 호텔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컨벤션 시설과 관광 및 특산품 관련 업체에서 숙박권, 빅오쇼 티켓, 크루즈 탑승권, 여수 갯길치 등 다양한 경품을 협찬해 온라인 경연대회의 집중도와 호응도를 높였다.

여수/김상면 기자

# 구례군, '생명사랑 로고젝터' 설치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관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로고젝터'를 최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은 자살 고위험 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서천체육공원과 문척교 주변에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바닥이나 벽면 등에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비춰 홍보 문구와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조명 장치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연락주세요 △너 별처럼 빛나 사람이야 △당신은 혼자 아님니다 △아름다운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등의 자살예방 포어 문구와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안내 문구를 담았다.

또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상담전화(1393), 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 장성군,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연이은 쾌거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선정 2년간 최대 1억4천만원 국비 지원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0년도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관광 운영 주체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3차례 심사를 거쳐 전국 6개 지자체(경기1, 강원1, 전북2, 전남1, 경남1)를 최종 선정했다.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장성군은 2021년까지 최대 1억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공모에 선정된 장성 농촌관광 협의체 '별의별 숲 나들이'는 2년간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로컬푸드를 활용한 숲도시락과 순수유빵을 만들어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치유와 여유'가 중심이 된 실외 체험 프로그램 및 로컬푸드의 개발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문화적·경제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농촌관광이 제도약하여 '부자농촌' 장성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백태지 기자

# 구례형 어린이놀이터 주민과 함께 설계해요

## 학생·학부모·합동추진팀 중간보고회에서 의견수렴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와 학부모, 구례군수와 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 서서천체육공원 내에 약 2,600㎡의 규모의 구례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이 절실하다는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 2019년 4월 구례군청·교육지원청·학부모·학생 등 놀이터 합동 추진팀을 구성했다. 합동 추진팀에서는 그동안 순천 기적의 놀이터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 3월부터 놀이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관내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선호도조사를

거쳤다. 이를 반영한 설계안에 대하여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학생, 놀이터 합동추진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했다.

학부모들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공간, 창의성을 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구례군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 조성에 어린이, 주민, 전문가, 의회, 행정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낸으로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 담양군, 블루베리 고품질 재배 기술교육 개최

## 농업인기술교육 대체 품목별 중심 농업기술전문영농교육 추진



담양군이 최근 블루베리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고품질 재배 기술교육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대체, 영농일정과 연계한 품목별 농업기술전문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블루베리, 딸기수경재배, 토마토, 한우 개량과정을 4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농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 블루베리 연구사 김홍림 박사를 초빙해 블루베리의 세계적인 재배동향, 생산 판매 유통, 재배기술의 토양관리의 특성 및 이해, 수확 후 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

했다.

특히 교육 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교육장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및 개인별 마스크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준수했다.

자세한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damyang.go.kr) 공지사항란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061-380-3440), 또는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하면 된다.

담양/김용학 기자

# 영암군 보건소,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영암군 보건소는 시력상실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연중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안질환(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노인 검진을 실시해 219명 검진, 39명의 이상 소견자에 대해 정기 검사 및 개안 수술을 안내하였고, 백내장 등 저소득층 안질환자 26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였다.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군

민은 군 보건소에 구비서류(수술명이 기재된 수술희망병원 안과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진찰한 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가 이뤄지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3주 이내 지원결정을 개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국선 영암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 전주시 도심 곳곳 노는 공간, 썬지정원 조성

전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도심 곳곳의 쓰고 있지 않은 공간에 시민들이 만들고 가꾸어갈 소규모 정원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호성동 불로문공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밟고 아름다운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썬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썬지정원은 △중화산2동 광진햇빛잔아파트, 우성근영아파트 부근, 산월1길 △평화2동 덕적골 천변, 평화푸르마을아파트 △평화1동 남중학교 앞 △호자2동 휴먼시아1단지 △서완산동 금강빌라 부근 △중노송동 천사길 부근 △호성동 불로문공원 △금암1동 삼송5길 △덕진동 유토피아아파트 △송천2

동 송천시영아파트 △만성동 813-1 인근 등이다.

시는 이러한 썬지정원을 14개 공동체와 함께 가짐박달나무 등 8000그루의 나무와 1만3100본의 초화류를 식재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정원 기획부터 수종 선택, 정원 배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원을 아낌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 영광군, 해수부 위생안전 체계구축사업 첫 수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신규 공모한 '유통단계 위생 안전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으로 거래되는 장소인 유통장까지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다.

올해 4월 영광군에서 응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의 입지여건, 건축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였고 그 결과 영광군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0년~2021년까지(2년간) 군은 영광군수협에 저온경매장 1개소와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 등 총 4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영광군수협은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춘 저온경매장, 대량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눠 판매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에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을 지원받아 산지위판장이 더욱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이 거래되는 첫 장소인 산지위판장을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영광군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 여수시, 미래 100년 이끌어갈 관광 청사진 설명회

### 2030 여수시관광종합발전계획 시민의견수렴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2030 관광종합발전계획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 합동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관광 산업은 여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 산업으로, 여수시는 현 실태 진단과 관광 미래 비전을 담은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성공 개최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대 현안이 담긴 두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규모를 대폭 축소

해,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민, 공무원 등 77명이 참석했다.

여수시장의 인사말씀, 용역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여수 관광의 현 실태 진단과 관광 환경 전망, 향후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은 개최 당위성과 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돌산 진도지구를 주행사장으로 주요 거점 섬에 지역특성에 맞는 부행사장을 운영하는 안등을 설명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전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내년엔 국제



행사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관광 산업은 우리 시 미래 먹거리"라고 밝히며, "우리 시 현안이 담긴 오늘 용역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30 여수시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이달 28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음 달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수/김상민 기자

# 구례군,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개강식

사전 방역과 개인위생 수칙 수칙 준수로 안전한 교육 추진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2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개강식을 가졌고 본격적인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에는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40여명이 참여한다.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을 연기해 왔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개강했다. 교육생 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향후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교육 전 수강생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하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창업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총 15회 차에 걸쳐 가공 기초 이론, 제품개발 역량 강화, 현장 위생관리, 농산물 가공창업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

정이다.

본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구례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장비를 사용할 자격이 부여되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 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코로나19로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식품 제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윤철 기자

# 영광군,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서 종합 1위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 실시한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영광군이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10위권에도 들지 않았던 영광군은 올해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단숨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영광군의 재정역량은 올해 중위권을 기록했지만 행정서비스 분야 개선 성과로 지난해 40위에서 무려 38계단을 경종 뛰어오른 전체 2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종합평가에서 1위

를 거머쥐었다.

특히, 영광군은 행정서비스 5개 항목 중 지난해 하위권을 기록했던 지역경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군 단위 전국평가 1위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 기조 아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견이정(聞見而定)'의 행정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영광군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영광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노경태 기자

# 담양군, 국민권익위원회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화순·곡성·광주 북구 주민들도 상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

담양군은 오는 29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전국 순회 현장 행정서비스이다.

이번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적 고충처리에 익숙

하지 않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행정 분야는 물론 생활고충까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 분야, 부패 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생활법률 분야, 소비자피해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이다.

담양/김용학 기자

# 보성군, 2020년 지자체 평가 행정서비스 전국 5위

지자체 20위에서 5위로 수직상승 두 달 빠른 소통 보성군 행정 통했다.



보성군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행정서비스 부문 전국 5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지자체 평가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부문을 지표로 삼고, 놓여준 82개 지자체를 평가했다. 보성군은 행정서비스 전문분야에서 고른 득점을 받아 군부 5위에 올랐다.

보성군은 2019년 20위를 기록, 1년 만에 15단계가 올라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종합평가 상위권에는 영광, 기장, 울진 등 원전 효과로 재정역량이 좋은 지자체가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은 높은 행정서비스 점수로 종합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하며 행정 서비스 강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안전분야에서 보성군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등 재난 안전 분야에서 전광왕을 차지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읍면단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내는 등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시장군수 중 가장 먼저 봉급 반납을 선언했으며, 전국 최초로 마스크 의병단을 구성한 군민에게 면마스크를 무료 제작 배부하는 등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이 이번 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의중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복지, 문화 등 전방위에서 군민 만족도를 높이며 군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 순천시,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

순천시(시장 허석)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공모에 해룡면 삼상사거리 교동삼이 선정돼 10월까지 약 2,000㎡의 규모의 '지방재정의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지방재정의 숲'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도심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순천시, 총남 보령시, 강원도 인제군, 인천광역시 서구 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이다.

순천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생태도사기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웰빙로와 잘 어울리는 '지방재정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순천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와 행정이 협력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모델이다"며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사)숲속의 전남과 함께 정원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장흥군 청사 신축 군민공청회 1, 2차 열어

장흥군은 최근 군 청사 신축 1차 군민공청회에 이어 더 많은 군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2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등 여러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9.11.15.~2020.7.11.)'에서 도출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민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신축 위치 선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 중 116명이 설문조

사에 참여했으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90.5%(105명)가 찬성하였고, 현 청사 부지 신축 의견에는 80.2%(93명)가 찬성하였다.

장흥군 현 청사 본관동은 1977년, 별관동은 1965년, 의회동은 2003년에 건립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승강기 및 휴게 공간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전등급 D는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긴급보수보강이요구되는상태이다.

장흥/김종현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 여수 진남장학회, 제23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 23년째 1,347명에 6억710만원 장학금 지급 박정재 이사장 2020년 5월 2억 원 추가 출연

진남장학회가 여수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사업을 23년째 이어오면서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진남장학회(이사장 박정재)가 21일 오후 3시 여수시 봉계동 진남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진남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초·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2명 등 67명의 학생에게 39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남장학회는 지난 1996년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념을 가진 진남개발 박정재 대표가 장학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립됐다.

2020년 5월 박정재 이사장이 장학금으로 2억 원을 더 출연해 자본금이 4억 원이 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진남장학회는 지난 1997년 10월 제1회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어렵고 소외된 지역학생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설립돼 지역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정재 이사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여수의 주인공인 지역



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혁신을 통해 여수에

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남장학회는 지금까지 대학생 369명 등 1347명에게 총 6억 7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수/김성연 기자

# 홈플러스하남점, 하남시에 가정간편식 672개 기탁!

홈플러스 경기하남점(점장 박우진)에서 최근 228만원 상당의 가정간편식 672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우진 점장은 "급식소 운영 중단 등 코로나19 여파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간편식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소외계층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에서도 더욱 세심한 정성을 다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즉석밥·즉석국 등 9개 품목의 간편식으로 사례관리대상자, 홀몸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홈플러스 경기하남점(점장 박우진)에서 지난 21일 228만원 상당의 가정간편식 672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박우진 점장은 "급식소 운영 중



단 등 코로나19 여파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간편식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소외계층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에서도 더욱 세심한 정성을 다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즉석밥·즉석국 등 9개 품목의 간편식으로 사례관리대상자, 홀몸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남/이영희 기자

# 농협 장성군지부,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전남 장성군은 지난 22일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가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조상명 농협 장성군지부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이날 기탁된 장학금을 총 6명의 학생에게 50만원씩 전달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인재 양



성을 위해 뜻을 모아준 농협 장성군지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전한다"고 말했다.

장성/백태기 기자

# 김포시,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 꾸러미 배달

경기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동)이 6월까지 관내 학생들의 가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꾸러미를 배달한다.

코로나19로 등교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급식 예산을 활용해 식재료 꾸러미 5만 원, 모바일 쿠폰 5만 원 등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김포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171개교·원 약 6만 5천여 명이다. 식재료 꾸러미는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우수식재료를 선택했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친환경농산물 14종, 그 외 유치원과 중·고·특수학교는 김포시가 김포급쌀, 수산물, 우수가공식품 등 8종을 추천했으며 최종 학교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생 가정에 택배로 공급된다.

앞서 지난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장 최재용)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선호도, 안전성 등을 고려한 건강한 꾸러미 추천 품목을 선정해 경기도교육지원청에 추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시적이지만 학생가정에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학생의 건강을 챙기고 학교급식 공급 능가 및 업체 등의피해를 줄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차혁문 기자

# 담양가축방역채혈팀-베비에르 밀팩토리(주), 이웃돕기



전남 담양군은 최근 담양군 가축방역채혈팀에서 성금 2백만원, 베비에르 밀팩토리(주)에서 백미(20kg) 70포를 군에 기탁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담양군 가축방역 채혈팀(대표 오점목)은 수의사 3명, 수정사 4명으로 구성, 담양군의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액을 채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만원을 기탁,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베비에르 밀팩토리(주)(대표 마옥천)는 지난 20일 오픈식을 갖고 화환을 대신해 받은 백미(20kg) 70포를 기탁해 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며, 기탁된 성금 및 성품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학 기자

# 카네기사회봉사위원회, 백사면에 후원물품 전달

한국카네기 이천, 여주, 양평 사회봉사회(회장 천재영, 이하 카네기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백사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호일)에 후원물품 쌀15포(10kg)과 라면 30박스를 기탁하였다.

카네기 사회봉사위원회는 10여년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을 지속해 오는 단체로, 천재영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정에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행복한 나눔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호일 백사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카네기 사회봉사위원회의 아름다운 마음을 대상자에게 꼭 전해드리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천/유기영 기자

# 경북도, 기업체 희망나눔 계속 이어져

롯데제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홍삼제품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 관계자들에게 전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북도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롯데제과(주)(대표 이사 민명기)에서 홍삼제품 1억원 상당(소비자가 기준)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고 경북도에 제공하라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제과가 출연하는 홍삼제품은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원료로 만든 홍삼정과 먹기 좋게 만든 홍삼스틱 2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의료관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홍삼제품을 공급하는 롯데제과(주)는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방과 후 놀이와 학습을 돕기 위해 빼빼로 판매 수익금으로 「롯데제과 스위트홈」을 전국 7개소에 설치하였고 경북에는 2014년 예천군 제2호(금당실지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전달식에 참석한 롯데제과(주) 손정식 상무는 "코로나19 환

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잘 극복되어 경상북도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롯데제과 전 직원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우리도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관계자들에게 홍삼제품을 공급해주신 롯데제과(주)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고생한 의료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대구 시내버스 업체, 코로나19 성금 기부

시내버스업체와 운전기사들 기부로 모은 성금 1억6천여만원 전달 '화제'

최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최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병화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버스노동조합의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성금 1억6,000여만 원은 26개 시내버스업체가 1억원,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자발적 기부금 6천여만원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 기부에 동참해주신 시내버스업체 관계자와 운전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각계각



층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온정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시내버스업체와 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대구시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코로나19 초기부터 시내버스와 차고지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대구/신진범 기자

# 고양시 자원봉사자, 수제 면 마스크 재능기부

경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허신용)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2명의 자원봉사자가 자택에서 만들어 기부한 1,000여개의 면 마스크를 복지관과 시설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재봉틀을 사용하거나 손바느질로 자신의 재능을 나눈 봉사자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일상의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 답답했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 기쁘고 행복했다는 한결같은 소감을 전했다.

김영숙 자원봉사자(행신동)는 쓰레기로 쌓이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다 300개가 넘는 면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면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는 봉사자들에게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시간 등록으로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재택봉사활동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봉틀을 사용하여 만든 면 마스크를 기부할 경우 마스크 5개당 2시간, 손바느질로 만든 면 마스크는 3개당 2시간의 실적이 인정된다.(성인만 가능).

원단 및 부자재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이웃과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고양/김성태 기자

# 안산시, (주)삼우화학 손소독제 600개 기탁 받아

코로나19 극복 위한 따뜻한 나눔 문화  
지역사회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기로

지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2일 (주)삼우화학으로부터 손소독제 600개(300만 원 상당)를 기탁 받아 방역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기로 했다.

1986년 설립돼 인쇄회로기관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주)삼우화학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화합과 공존으로 자연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은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용재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동참,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코로나19) 관련 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용재남 (주)삼우화학 대표는 "안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쳐온 기업으로서 시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안산/김대성 기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성금 268만원 기탁

지역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병원장 하성호)은 최근 의정부2동주민센터(동장 박광균)를 방문해 성금 268만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성호 병원장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감염병 위기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주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민센터가 큰 역할을 해달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으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광균 의정부2동장은 "코로나

19로 최전선에서 땀 흘리시는 의료진들께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지역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시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의정부병원에서 방역당국과 함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치료의 일선에서 가장 많이 힘쓰고 계신 것과 같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각종 제도 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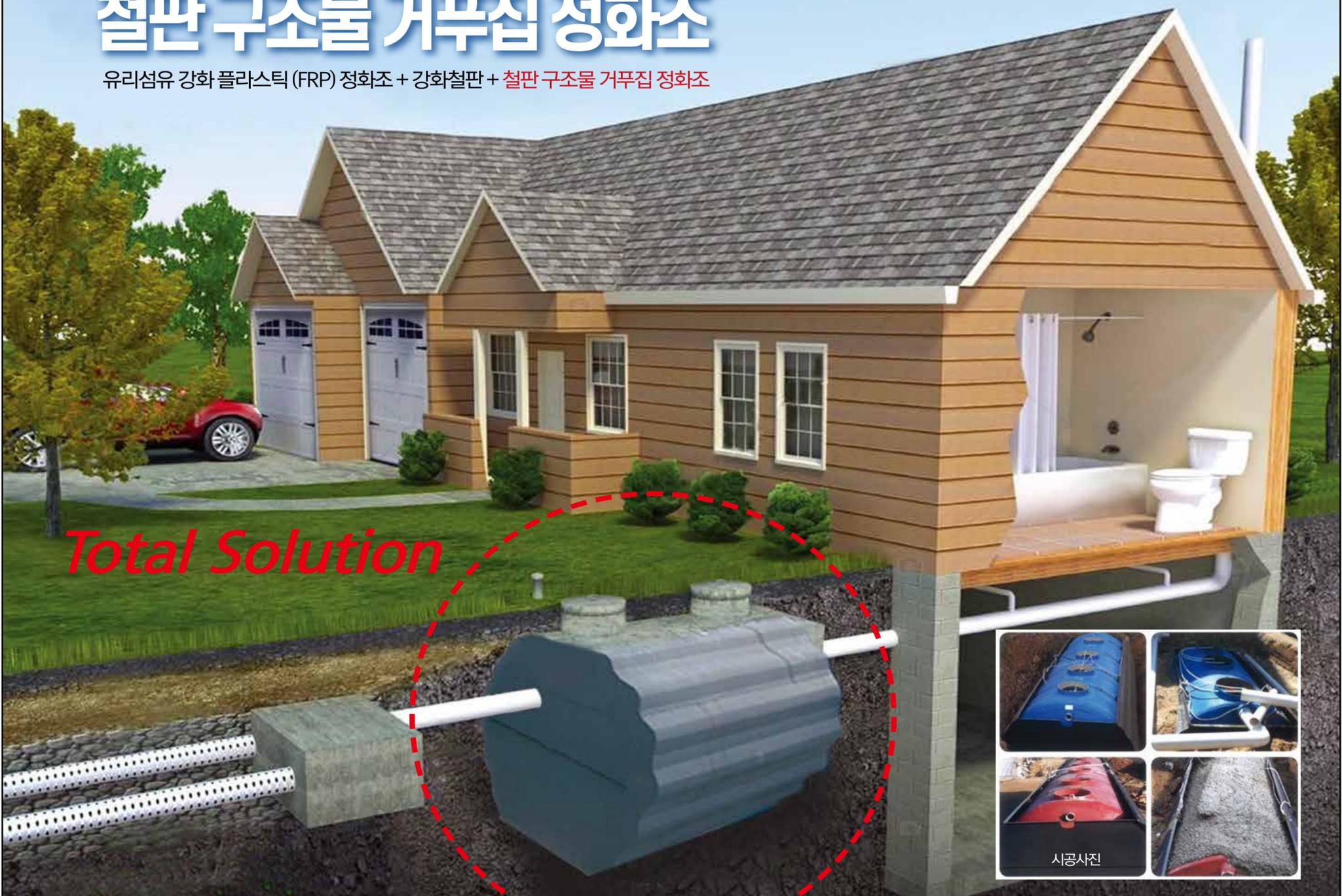
의정부/김승근 기자

신라스틸1986 

오수 및 단독 정화조의 혁신

# 철판 구조물 거푸집 정화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 정화조 + 강화철판 + 철판 구조물 거푸집 정화조



Total Solution

## 더 간편한 '정화조'가 필요하십니까?

콘크리트 타설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강도가 보강된 정화조 구조물로, 시공방법이 간편한 정화조를 찾으신다면-

### 철판 거푸집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의 차이점

#### ● 일반 정화조

##### 일반 정화조의 장점

- \* 시공이 간단하다
- \* 비용이 저렴하다

##### 일반 정화조의 단점

- \* 정화조가 깨질 위험이 있다
- \*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진다

#### ● 콘크리트 정화조

(기존에 가장 많이 쓰는 정화조)

번거로운 시공과 많은 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 ● 철판 구조물 거푸집 정화조



1. 바닥 타설 작업 2. 정화조 안착작업 3. 보호벽 타설 작업 4. 뚜껑기초, 환기통 등 작업 5. 안전망 뚜껑 안착

- 1. 일체형의 원형 구조로 설치장소의 면적 감소
- 2. 자체 거푸집으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
- 3. 정화조만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순조로움
- 4. 다양한 크기로 어디든 시공 가능



### 다양한 크기로, 어디든 시공 가능한 단독 철판 거푸집 정화조

정화조와 외벽 부를 체결편의 끼움 결합 구조를 이용하여 고정후, 상기 정화조와 외벽부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경화하여 정화조 구조물을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1986년부터 고객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1997년 IMF를 깨끗하게 건디며 2005년 마침내 건설업을 향해 나아 가다.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철판 거푸집 정화조’에 도전합니다!”

 신라스틸1986

경제칼럼

## 지역분권의 꽃 '지역특구' 활성화



▲ 문기주 대표회장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역사적 출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11월 03일 재정경제부 산하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2008년 0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5년 후인 2013년 03월 23일 또다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쳤다.

특구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구의 지정 및 추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지정이 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현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첫 해인 지난 2004년 5개 지자체가 6개 특구를 지정한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가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65.8%가 넘는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구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항토자원특구가 93개(47%)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특구 48개(25%), 교육특구 32개(16%), 산업연구특구 18개(9%), 의료·복지특구 5개(3%)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구지정으로 신규 일자리 총 13,312개, 신규 기업 유치 1,265개, 총 매출 10조 7,559억 원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럼에도 국내 특구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잉 지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자원 낭비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국내 특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66%인 152곳이 하나 이상의 경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구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 등 주체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특구 대부분은 개별법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설치하면 폐지하기도 어렵고 정부 부처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조율도 쉽지 않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도입됐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이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역특구와 지역전략산업간 연계 미흡, 예산 부족, 규제 특례 발굴 한계 등으로 '무늬만 특구'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 제약 없이 상품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된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했다.

● 일대 전환점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나선다.

2019년 4월 17일 발효된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된다.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 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하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 핵심규제지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중점 지원 계획을 세웠다.

결국,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019년 7월 23일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 하에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

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경직된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 지역은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2년 후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각 주체간 '소통과 효율성' 담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성장기반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민간의 지역특구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전반적 현황분석과 함께 핵심적 아이디어인 ▽ 규제완화의 효과 정도 ▽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유용성 ▽ 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으로서의 효율성 등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 특구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시행 ▲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 특성화 등의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의 소통은 물론,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해졌다.

## 사설

### 이미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나라살림 형편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확장재정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채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돈 살포에만 의존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나라 재정은 이미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국가채무는 5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이뤄지면 올 연말에는 87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741조원에서 1년 만에 130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45.8%로 치솟는다.

나랏빚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소득 주도성장'을 외치며 선심성 자금을 마구 뿌린 결과다. 문재인정부 3년여 동안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이명박정부(6.59%)의 2배, 박근혜정부(4.28%)의 3배에 이르는 12%대에

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돈을 살포했는지 알고도 남는다.

국민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세금과 강제성 연금·보험료를 합한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4만1000원으로 4년 새 31.4%나 늘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도 774만원에 달했다. 기업·가계의 호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 아니다.

여당 일각에선 증세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코로나19에 멍든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감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증세를 하면 기업의 해외탈출 가속환이 가속화할 것이다. 세수 증가는 고사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랏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18억달러에 이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세금 중과·반기업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아예 해외로 옮겼기 때문이다. 남유럽 PIGS 국가에서는 또 재정위기에 처하면서 국가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부실한 재정이 근본 원인이다. 부실 재정이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펴면서 어찌 재정 살포만으로 경제를 살리겠는가.

### 윤미향 당선인, 언제까지 버티려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재차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를 맡았던 윤 당선인의 위안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지난 7일 제기한 이후 두번째다.

이 할머니는 올분엔 찬 목소리로 "정대협이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고, 30년 동안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이 빼아프게 받아들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할머니는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첫 기자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많이 나왔다"면서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고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사리사욕에 따라 출마했다. 용서할 것도 없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위안부 운동의 30년 동지였던 할머니와 윤 당선인이 '배신자' 운운하는 관계로 전략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할머니와 관계 약화는 윤 당선인이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자고 일

어나면 윤 당선인과 정의연, 정대협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연이 영화 '김복동'의 해외상영회를 한 다며 배급사도 모르게 상영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모금하고 단체 예산으로 전용한 의혹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인 인터넷 언론사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원시에서 홍보비 조로 1억3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정의연 등의 회계 누락이 많은 반면 윤 당선인 개인계좌엔 의문의 돈이 상당액 들어 있다. 할머니는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뇌물이 쟁긴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할머니가 던진 물음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 진보 진영 뒤에 숨어 있는 건 국민의 대 표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안부 인권 운동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하다.

eTEC 이테크 건설

이테크건설은  
고객이 꿈꾸는 이상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 선입견 날릴 힙한 현대무용 콘서트

###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Body Concert> 몸으로 만드는 콘서트, 자유분방하고 경쾌한 몸짓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재준)은 5월 29일(금)과 30일(토)에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새라새 ON 시리즈 3번째 작품으로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바디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2020년 선보이는 '새라새 ON 시리즈'는 '새롭고도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펼쳐지는 소극장 공연 특유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기획브랜드다. 연극, 무용, 전통예술, 재즈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만날 수 있다.

<바디콘서트>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대표작으로 현대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 뿐 아니라, 공연 애호가라면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다. 2007년 창단한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애매모호한(ambiguous)'이라는 의미의 단체명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장영규가 이끄는 밴드 이남치와 폴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인 '범 내려온다'의 영상 조화수가 무려 137만부를 기록하는 센세이션을 일으켜 무용 애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몸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디콘서트>는 안무가 김보람이 무용수로서 한번은 춤추고 싶었던 곡들을 골라 안무를 완성했다.

관객은 익숙한 음악과 함께 열정적이고 에너지 가득한 무용수들의 몸이 주목하며 순간순간 몰입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렉트로닉 음악의 선구자 다프트 펑크(Daft Punk)부터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

주곡>과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 등 클래식 음악을 넘나들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과 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아울러 컬러풀한 비니와 물안경, 양말을 이용한 의상 컨셉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만의 개성적인 시각 이미지를 구축한다.

초연 당시 '크리티크스 초이스 최우수작품상' 수상, 2016년 'PAMS Choice', 2017년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 연극제'에도 초청됐으며 이 공연을 관람했던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는 "눈을 땔 수 없는 공연"이라는 평을 남겼다. 2019년 호주 캐슬메인 축제에서 5일간 공연하며 '헤럴드시드니' 리뷰에서 별 다섯 개 평가를 받았고, 독일 베를린 현대무용페스티벌 '탄츠 임 아우구스트(Tanz im August)'에 공식 초청돼 4회차 공연 전석 매진을 달성했다.

<바디콘서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로 진행되는 등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예매는 고양문화재단, 인터파크티켓, 네이버예약 등에서 가능하다. 입장가격은 전석 3만원으로, 20~40% 할인이 가능한 새라새 ON 패키지 할인, 전석 1만5천원에 관람이 가능한 청소년 ON 패스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 또는 전화(1577-7766)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성태 기자

### 광명예술인문학강연으로마음치유

경기 광명시 철산도서관은 오는 27일부터 예술인문학 강의인 '예술인문학 클래스 : 시(視)청(聽)동(動)'을 개최한다.

예술인문학클래스는 철산도서관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던 '인문학강연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인문독서아카데미'를 결합한 것으로 올해 총 12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예술주제로 총23강에 걸쳐 인문학적으로 풀어낸다.

강의는 철산도서관 특화주제인 '예술'을 보고 듣고 움직이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 시작하는 <보다> 분야에서는 윤광준 사진작가의 '다시 돌아온 일상의 즐거움'을 예술로 채우기'를 주제로 코로나 블루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6월에는 엄미나 미술 큐레이터와 양용기 건축학과 교수가 각각 미술과 건축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7월에 시작하는 <듣다> 분야에서는 래퍼 박하재홍이 '랩, 널 만난 건 행운이야'를 내용으로 신나는 랩 강연을 하고 뒤를 이어 대한민국 대표 음악 전문가인 임진모 평론가가 '대중음악으로 배우는 소통과 지혜'에 대해서 강연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강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강연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철산도서관 김홍표 관장은 "철산도서관 인문예술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인문학을 생활화하고, 예술의 즐거움을 발견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광명/정재두 기자

### 문경새재 생태미로공원 입장객 1만명 돌파!!



경북 문경시는 올해 4월 22일 개장한 문경새재 내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객이 개장 31일 째인 5월 23일, 1만 명을 돌파한 10,205명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1만 번째로 입장한 안동에서 문경새재를 찾은 윤\*\* 가족에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상용 생태공원담장이 문경새재 방문 기념품 및 문경특산품 오미자청을 증정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전체 미로길이 1.9km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측백나무로 특색 있게 조성한 도자기미로, 연인미로, 생태미로와 문경에서 채취한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돌미로 등 4개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다.

미로별로 설치되어 있는 도자기 및 연인 조형물을 통한 추억의 인생샷도 남길 수 있어 미로별 특색 있는 미로체험을 할 수 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개장 후 1개월 간 직원 3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매월 600만원의 고정 비용에 1,778만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월 1,178만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1억 원의 운영 수익이 예상되어 문경시 대표 수익 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 어른(일반, 단체) 입장객에게 문경시 농·특산품교환권(1,000원)을 배부해 2,060만원의 문경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효과도 거두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김학련 소장은 "문경생태미로공원이 개장 후 31일째인 오늘 입장객이 1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입장객이 8만7천 명, 입장수입이 1억 6천만 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방문객 불편사항 개선으로 문경새재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장성우 기자

### 김포 독립운동사 자료 발굴에 주력한다

경기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이 시민들의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과 민족정신 선양,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역사교육과 관내 독립운동사 자료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은 총 74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1919년 발행 김포 대형 지형도와 태극기 엽서 등 여러 자료의 수집과 유족으로부터 김포 독립운동가 이기순(李起舜) 국가유공자증, 훈장증 및 훈장을 기증받기도 했다.

또한 김포 출신 독립운동가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영인본을 제작하는 등 독립운동기념관 자료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관내 독립운동을 체계적 수집·관리하기 위해 2019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료 수집·발굴과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포/차력문 기자



이중상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는 "김포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김포 독립운동 관련 기사가 실린 1900년대 신문 약 30건의 자료들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김포 독립운동 아카이브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규 단원 모집

경북 김해시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 6월 13일 창단한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가야왕도 김해를 대표하는 지역예술단체로서 지역 내 클래식 인재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연주 실력과 폭 넓은 레퍼토리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신규 단원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김해시 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과 연주 기량을 갖추고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모집부문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바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팀파니, 타악기이며 원서 접수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시정 문화예술과 예술팀으

김해/김영도 기자



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실기와 면접 전형은 다음달 20일 김해문화의전당 시립예술단 학습관에서 실시되며 같은 달 24일 시정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활동은 김해시 지원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공연 기회 제공, 월 정액수당 지급, 정기연주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단원에게는 표창 수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더연합타임즈** **신문포커스**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20년 2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가5013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YuYkBSbhc69P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을 잃은 소희 씨  
가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마음을 담아

기가지니 AI 음성합성 기술로  
세상에 없던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KT에 담고 싶은 건  
바로 고객님의 마음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담다

kt